

문 35: 거룩하게 (성화케)하신것은 무엇인가 ?

답 35: 거룩하게 하신것은 (성화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되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데살로니가후서 2:13; 에베소서 4:23-24; 로마서 6:4, 6, 14, 8:4; 베드로전서 1:2

질문 1: 거룩하게 하신것은 누가하는 것인가?

질문 2: 거룩하게 하심이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3: 사람의 어느 부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질문 4: 거룩하게 하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 5: 거룩하게 하심은 단번에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과정인가? 설명하라.

질문 6: 거룩하게 하심에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설명:

거룩하게 하신것은 의롭게 됨과 양자됨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며 사람은 조금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임을 또한 증명한다. 성화의 과정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성화시킬 수 없다. 한단계, 한단계의 성장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서론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참여에 대해 잠시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한다.

거룩하게 하신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을 전적으로 새롭게하시는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 거룩하게 하신것을 통해 사람은 내적, 외적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내적 변화를 거듭난 삶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골 3:9-10) 내면의 변화는 외면과 적지않은 격투를 벌리게 만든다. 그 이유는 내적 변화를 체험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욕의 죄성과 평안하게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일 3:6-9)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신것은 사람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 영적성장이 있다면 그 것은 우리의 생각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를 체험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신것은 사람의 내면과 외면이 나란히 존재하게 하여 위선적인 사람이 아닌 안과 밖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안과 밖이 같은 것을 진실하다고 표현한다. 거룩하게 하신것을 가장 잘 표면화하는 것이 바로 이 진실성이다. 또 거룩하게 하신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비록 죄인이긴 하나 나의 죄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죄로 불줄알아야 한다.

거룩하게 하신것의 목적은 좋은 행동을 하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더 확실하게 들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 매일 더 닮아가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신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이미지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신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심이 완전한 후에는 절대로 부패와 시험으로 연약하여 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신학자 웨인 그루뎀([Wayne A. Grudem](#))은 의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설명했다.

의롭게 하심(Justification)

법적 상태
 단번에 이뤄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뤄진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다

거룩하게 하심(Sanctification)

내적 변화와 상태
 평생토록 계속되는 과정
 하나님과 사람이 동참하는 과정*
 죽어서 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크리스천들마다 정도가 다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속사역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시는 것이다. 한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진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엡 2:8)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채고 영접하는 것이다. (살전 2:13, 4:3, 5:23; 히 12:2,4-11, 13:20-21; 빌 2:3, 12-13; 고전 1:30, 6:18; 뱀전 1:2, 2:21; 요일 2:6, 3:3; 갈 5:22-23; 롬 8:13-14; 12:1)

거룩(성화)하게 하신 것은 크게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고 양자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역사, 사역하심과 도움심이 점점더 나의 내면을 채우게되며 밖으로는 점점더 구체적으로 표면화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면화 되는 삶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 (엡 4:13)

둘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나를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말이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성화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한다. (요 15:19, 17:14)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화는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 가는 것을 말한다. (롬 8:5)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3 장 거룩하여짐에 관하여

13-1. 일반적 서술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을 통해 그리고 그들 속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실제로 거룩하여진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치가 파괴되고 그 정욕들은 점점 약해지며 억제되고, 그들은 모든 구원적 은혜들 안에서 점점 살아나고 강해져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

13-2.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함

이 성화(聖化)는 인성(人性)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부패성의 어떤 잔재들이 아직도 각 부분에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며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신다.

13-3. 영적 성장

그 싸움에서 남은 부패성이 얼마 동안 많이 우세할지 모르지만, 거룩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힘의 계속적인 공급을 통하여 중생한 부분이 이기고,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제 14 장 구원적 믿음에 관하여

14-1. 믿음의 원천

선택된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행하신 일이며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그것으로 그리고 성례들의 집행과 기도로 그것은 증가되고 강화된다.

14-2. 믿음의 내용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것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 때문에 말씀 속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으며; 그것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바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니, 명령들에는 순종하며 경고들에는 떨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위한 약속들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적 믿음의 주된 행위들은 은혜 언약에 의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여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14-3. 믿음의 정도

이 믿음은 정도에 있어서 서로 달라 약하거나 혹은 강하고;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하며 약화될 수 있으나 승리를 얻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완성자이시다.
